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하반기 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간과 동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일시 | 12월 12일(수) 19:30~21:40

장소 | 100주년사회봉사관 지하2층

발행일 | 2018년 12월 6일(금)

발행인 | 정병오, 고재길

편집인 | 윤신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인간과 동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순서 및 목차

사회 : 고재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7:35~8:20

발제1 : 동물,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장윤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4쪽

8:20~9:00

발제2 : 인간과 동물권의 관계

이박광문 전 물푸레생태교육센터 활동가 9쪽

9:00~9:20

발제자 상호 질의·응답 : 동물신학과 동물권의 교회 내 실현 가능성

9:20~9:40

참가자 질의·응답

발제 1.

동물,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장윤재

“동물, 고로 나는 존재한다”

(L’animal que donc je suis) – 휴먼의 경계를 넘어 생명으로[1)]

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수는 1,200만 명이나 된다. 국민 4명 당 1명 꼴이다. 하지만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전국적으로 수 만 마리의 반려견들이 버려진다. 한 해 평균 약 10만 마리가 버려진다. 대개 늙고 병든 강아지들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아 수출 1위일 뿐만 아니라 유기견 수출도 1위다.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버려진 개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몇 년 전 캐나다로 입양 간 유기견 ‘티파니’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티파니는 주둥이가 없다. 누군가 티파니를 잡아먹으려고 철사로 입을 묶은 채 몽둥이로 때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철사에 묶여 있던 입이 몽땅 잘려나갔다. 이 사연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까지 알려졌고 캐나다의 한 대학병원이 데려가 수술을 했다. 캐나다 전역에서 입양 신청이 쇄도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진보했는가?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2)]

동물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50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3)] 물고기를 빼면 매년 25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의 음식이 되기 위해 죽고, 매년 4천 만 마리의 동물이 모피가 되기 위해 죽는다. 먹고 입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상품들은 대부분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실험을 거친 것들이다. ‘토끼눈 실험’이라는 게 있다. 1940년대에

1) 이 논문은 본래 “무지개의 하나님, 푸줏간의 그리스도, 그리고 동물신학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신학사상」 171 (2015.12)에 발표한 글이다.
2) 나영춘,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뿐,” 「오마이뉴스」 2011.11.05.
3) 이하 Catharine Grant, *The No-nonsense Guide to Animal Rights* (Oxford, UK: New Internationalist Publications Ltd., 2006)를 참조하였다.

드레이즈(J.H. Draize)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드레이즈 테스트'(Draize Test)라고도 불린다. 토끼들은 머리만 내밀고 꽁꽁 묶인다. 그리고 표백제나 샴푸 혹은 잉크를 한쪽 눈에 투입한다. 토끼는 비명을 지르며 움직여 도망가려 한다. 하지만 단단한 조임 장치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 실험에 토끼가 사용되는 이유는 토끼 눈이 커서 관찰하기 쉽고, 무엇보다 토끼의 눈에는 누관(淚管)이 없어 투여된 물질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크고 예쁜 눈이 토끼에게는 화(禍)가 됐다.[4]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은 나치다"라고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말했다. 또 간디는 이렇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건물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인간의 창조물을 파괴하면 '야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면 '진보'라고 치부하는가?" 실로 '문명의 진보'와 '동물의 고통' 사이에 깊고도 분명한 함수관계가 있다. 인간의 '진보'는 동물에 대한 '잔인성'과 정비례한다. 21세기 말에 가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3분의 2가 인간에 의해 멸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어쩌다 일어나는 사적(私的)인 일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일이라는 사실이다. 동물학대는 몇몇 개인의 병리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법화되고 제도화된 폭력이다.

'학대'(虐待, cruelty)란 '지각이 있는 생명체에 의도적으로 가한 고통'이다. 모든 학대는 죄악이다. 게다가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세계적인 동물신학자 앤드류 린지를 따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름의 본유적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권리는 하나님의 가치 부여하심에 근거한 권리, 곧 '신적 권리'(*theos*-rights)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5]

동물학대와 기독교

동물학대의 뿌리는 서구의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피터 싱어의 지적처럼 동물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두 개의 전통에 뿌리 내리고 있다.[6] 하나는 유대교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그리스 전통이다. (후에 이 둘이 기독교에 의해 통합된다. 그래서 동물학대의 문제는 곧 기독교의 문제이다.) 유대

4) 어느 정도의 동물실험은 인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과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의 이름을 살펴보라. 쥐를 33일간 잠재우지 않기(시카고대학), 갓 태어난 생쥐의 앞다리를 잘라 그럼에도 자기 몸을 단장하는지 관찰하기(오레곤대학), 10일 된 새끼고양이 양 눈을 꿰매 시력상실의 영향에 대해 관찰하기(옥스퍼드대학), 생쥐의 두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주사하기(케임브리지대학), 원숭이에게 신경가스, 청산가리, 방사능, 총알 혹은 미사일 쏘기(미 국방부), 자동차 충돌실험에 돼지나 원숭이 이용하기(GM),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 돼지 태아의 목을 자르고 그것이 임신한 암퇘지의 인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기(미 농무부), 비글이라는 사냥개에 플루토늄 주사하기(하버드대학) 등. (Ibid.)

5) 앤드류 린지, 장윤재 옮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대장간, 2014)을 참조하라.

6) 이하 피터 싱어, 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을 참조하였다.

교의 경전인 히브리성서(기독교의 구약성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지배권(dominion)이 주어졌다고 말한다.(창 1:28)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 역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피타고라스와 같은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사고의 능력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두 사상을 결합한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물론 서구 기독교의 초대 교부들 가운데에는 성 바실이나 성 크리소스톰과 같이 동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다. 중세교회와 신학의 기초를 놓은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리고 중세신학의 정점을 이룬 아퀴나스도 인간의 선(善)을 위해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을 갖지 못한 동물에게 자애로울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 특히 아퀴나스의 견해가 중요한데, 그는 동물은 정신과 이성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동물은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 지위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불행히도 그의 이러한 생각이 13세기 이래 서구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굳어졌다.[7)]

하지만 서구에서는 기독교만이 동물에 대해 잔인한 것이 아니었다. 근대 르네상스 휴머니즘 역시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았다. 다빈치나 루소와 같은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선언한 데카르트는 동물이 한낱 "사고하지 않는 기계"(unthinking automata)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친 칸트 역시 동물은 '자의식'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동물학대의 뿌리는 서구의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 신학과 철학이다.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아무 도덕적 제약도 받지 않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바로 이렇게 2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서구의 주류 사상과 신학을 타파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것인가가 사안의 핵심이다.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

이런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상이 기독교 신학 안에 '인간중심주의'를 낳았다. 인간중심주의는 '종(種)우월주의' 혹은 '종(種)차별주의'(species-ism)라고도 부를 수 있다. 종우월주의란 동물을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고 이 위계적 질서의 맨 꼭대기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

7) 그런 점에서 동물학대에 관한한 "A"로 시작하는 세 명이 문제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Aristotle, Augustinus, 그리고 Aquinas이다. 가톨릭교회는 1988년에 이르러서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신은 인간에게 지배권을 부여했으나 절대적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다른 생물을 임의로 죽일 자유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Ibid.)

기는 사고를 말한다.[8] 실로 우리는 '우리(us) vs 그들(them)'이라는 이항 대립적 도식 안에서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인간과 동물, 즉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사성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이항 대립적 경계는 그렇게 쉽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대부분 본질적이라기보다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기독교 신학은 이제 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할 때가 됐다. 최재천 교수의 말대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 종들은 하나의 DNA에서 출발해 오늘 여기까지 왔다.[9] 그 가운데 어떤 DNA는 단세포생물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DNA는 거대한 고래 속에, 또한 어떤 DNA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생물 종(種)들과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은행나무 속에, 벚나무 속에, 고래 속에,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DNA는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한 조상'에게서 갈려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인 구달(Jane Goodall)은 우리 인간이 경이로운 동물계의 일원이며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기쁘게' 인정하자고 제안한다.[10] 그녀도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크고 복잡한 두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발달시킨 복잡한 구어체계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침팬지와 유전자의 98.7%를, 고릴라와는 97.7%를, 오랑우탄과는 96.4%를 공유한다. 그리고 인간처럼 말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브로카령'(Broca's area)이라 불리는 두뇌 부분의 비대칭적 특징은 인간만이 아니라 침팬지, 보노보, 그리고 고릴라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주위의 다양한 생명의 형태들을 분류하고 단순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놀라우리만치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크고 잘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으며, 아주 복잡한 의사소통체계를 지니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 바로 밑에 유인원, 그 다음에 원숭이, 고래, 개, 그리고 쭉 내려가 곤충, 연체동물, 그리고 해면동물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이다. 큰 두뇌와 발달된 기술로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하여 지구와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게 되었다.*[11]

구달은 동물이 우리의 '친척'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맘껏' 기뻐하자고 제안한다. 기독교의 신학자 프란츠 알트(Franz Alt)도 이에 화답한다.[12] "생명체는 모두 친척

8) 옥스퍼드 영어사전 역시 "인간이 자신의 우월성을 전제로 특정한 동물 종을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종우월주의 혹은 종차별주의라 정의내리고 있다.
9) 이하 최재천, 『인간과 동물』(궁리출판사, 2007)을 참조하였다.
10) 이하 제인 구달, 『생명사랑 십계명』(바다출판사, 2003)을 참조하였다.
11) Ibid.

뻘이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아버지는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며, 모두 한 어머니인 물질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창조의 월계관을 자임하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친척관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동물과 인간은 친척관계(kinship)이다. 그럼에도 교회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침묵해왔다. '불편한 주제'로 금기시 해왔다. 하지만 알트는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침묵은 이제 수치스러운 침묵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피조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1970년에 「사이언스」 지에는 한 세기적 실험이 발표되었다. "침팬지 : 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실험은 '동물 거울실험' 보고서로서, 이후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며, 동물은 감정과 의식과 마음이 없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무너뜨렸다.[13] 보통 두 살 즈음의 인간 아기는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신으로 인식하는데, 동물 거울실험에서 침팬지는 거울을 보고 자기 이빨에 낀 먹이찌꺼기를 찾아보거나, 자신의 몸을 다듬는 등 분명한 '자기 인식 행동'을 보였다. 침팬지는 거울을 도구로 이용할 줄 알았고, 그러므로 자신을 타자(거울)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자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였다. 물론 인간의 '의식'와 침팬지의 '의식'이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거울실험은 침팬지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자의식을 인간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침팬지 실험이 성공한 이후 동물행동학과 심리학계에서는 실험을 계속해 침팬지에 이어 오랑우탄이, 그리고 돌고래가, 나아가 조류(鳥類)인 유럽까치도 자기 인식 행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로써 인간만이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선입견은 깨졌다. 그런데 만약 동물에게 '자의식'이 있다면 동물은 데카르트의 주장대로 더 이상 즉자적으로 세계에 반응하며 세상을 경험하는 자동기계가 아니게 된다. 또한 동물은 자의식을 갖지 못해서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그리고 동물에게도 자의식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동물을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비인간 인격체란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 아니지만(비인간, nonhuman), 인간만이 가졌다고 알려진 태도, 성격, 그리고 윤리 등의 인격성(인격체, personhood)을 일부 동물이 지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서구사상의 역사, 특히 근대사상의 역사는 동물에 대해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 특권을 정당화해 온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태껏 인문사회과학의 많은 논의들은 종 차별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맴돌았으며, 휴머니즘을 비판한다는 관점도 근본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인다. 인간 주체의 본질주의적 시각을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비인간 존재를 주변화하면서 인간 주체를 특권화하는 관점은 포기하지 못한 듯 하다. 하지만 이제 이런 관점에 내재해있는 폭력성과 편협성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그 문제제기의 선봉에 있다.[14] 그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온 바탕에 언제나 동물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간파한다. 그리고 인간과 동

12) 이하 프란츠 알트, 『생태주의자 예수』 (나무심는사람, 2013)을 참조하였다.
13) 이하 한겨레신문, 2015년 10월 24일, 제16면, "거울 앞에 선 오랑우탄, 인간우월주의를 깬다"에서 인용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1,380여회 인용되면서 세상을 바꾼 '세기의 실험' 중 하나로 꼽힌다.
14) 이하 박상언 엮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기획,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 (모시는 사람들, 2014), 23-25, 67-68을 참조하였다.

물의 구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특히 데카르트에서 칸트, 하이데거, 레비나스, 그리고 라캉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어떻게 인간과 동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동물의 '능력 결핍'을 주장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갖가지 이유 즉, '동물은 언어 능력이 없다, 이성적 능력이 없다, 죽음 의식이 없다. 매장 능력이 없다, 기술 발명의 능력이 없다. 혹은 얼굴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동물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데리다가 보기에 정작 물었어야 할 질문은 동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였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 이외의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동물'이라고 하는 단일하고 일반적인 범주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은 엄밀하고 명확한 사고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명명법(命名法)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권리와 권위가 있음을 자처하면서 생명체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데리다에게 문제는 인간이 동물이란 이름을 통해 자신을 '저절로' 규정하고, '저절로' 파악하며, '저절로' 자신의 일생을 써 내려 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이제 이 '저절로'의 자서전(auto-biography) 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데리다의 이러한 시도는 '타자의 윤리학'에서 레비나스가 표방하는 타자에 대한 책임과도 좋은 대조를 이룬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은 주체가 세계에 가하는 폭력은 제한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윤리적 가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얼굴'(face)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다. 하지만 데리다는 욕실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시선을 통해 인간 주체가 어떻게 동물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고찰하면서, 타자와의 새로운 인간 주체 형성뿐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윤리 자체를 뛰어넘어 생태주의와의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과학과 철학은 이렇게 인간과 동물 사이의 전통적 경계짓기에 의문을 표하며 새로운 세계상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여전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하며, 설사 인간과 동물 사이에 여러 유사성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며 수위적(首位的)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심지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신학자들조차도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이해가 상충할 때에는 인간에게 우선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민 교수는 동물이 "탄식하며 몸의 구속(救贖)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롬 8:22)이자 "생명의 친구"라고 말한다.[15] 하지만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동물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동물이 인간과 공유하는 몇 가지 경험론적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인격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종(種)이기주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입장이라 비판을 받더라도 그는 환생

15) 이하 김형민 교수의 주장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동물과 육식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 : "그리스도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롬 8:22)」 (2011년 지구의 날 기념 생태신학 세미나 자료집)에서 인용한다. 이 세미나는 필자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당시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조직한 세미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권을 놓고 연 최초의 신학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열렸는데, 이 해 4월 22일은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물의 수난이 겹치기도 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김준권(농업인), 박병상(인하대), 노영상(장신대), 이영미(한신대), 민경식(연세대), 김형민(호신대), 그리고 장윤재(이화여대)가 참여했다.

(還生)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 동물이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가르침과 달리, 또한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의 전통과도 달리, 기독교 신앙은 동물을 인격으로나 기계로 보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입장에서 동물은 '구원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결국 "동물에게는 영성[영혼]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6]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이 요청되고 있다"는 김교수 자신의 주장이나, 그가 빌립보서 2:10을 인용하면서 말한 바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위한 고난이기도 하다"는 주장과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은 아닌가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교수는 기독교의 사랑을 오직 인간과 인간 사이로 한정하는 것은 창조신앙에서 볼 때 종(種)이기적 발로라고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의 구원을 인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김교수에게 인간은 "의식 있는 영적 존재"로서 자신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변형해나갈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의 문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윤리적으로 구별된 존재여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연은 여전히 객체이고 타자이며 대상으로 남는다. 윤리학자로서 김교수가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동물의 권리에 대한 그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독교의 뿌리 깊은 인간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그리고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트의 말대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인간중심주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상과 무관하다.[17] 기독교의 구원자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랑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가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생명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제사에 의해 희생되어 왔던 동물의 기나긴 고통을 그치게 한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贖罪)의 피로 이제 동물은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양'의 역할로부터도 해방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토마스 베리(Thomas Barry)는 지금껏 기독교가 인간의 초월성(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내재성(관계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식물은 '생혼'(生魂, 식물이 생활해 나가는 근본적인 힘), 동물은 '각혼'(覺魂, 동물의 감각하는 힘), 그리고 인간은 '영혼'(靈魂,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을 지녔다는 중세 이래 서양의 차별적 혼 이해를 문

16) 김형민 교수는 신학적으로 영은 네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활성(anima)으로 생명력을 뜻하며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이를 공유하고 있다. 둘째는 감성(sensus)으로 감각, 정서를 뜻하며 동물,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 셋째는 이성(ratio)으로 이성과 사고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중세사회에서는 천사도 포함된다. 넷째는 영성(fides)으로 신앙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결국 구원은 - 동물은 차치하고 -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박상언 엮음,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에서 김형민 교수의 글, 161쪽.)

17) 프란츠 알트, 손성현 옮김, 『생태주의자 예수』 (나무심는사람, 2003)를 참조하라.

제 삼았다. 대신에 만물에게서 발견되는 자생성(自生性), 곧 야성(野性)을 신성한 것으로 보자고 그는 제안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먹이를 찾고, 은신처를 만들며, 새끼를 낳아 키우고, 또 희로애락을 느끼는 한, 그것은 우주의 야성, 곧 창조적 신성의 표현들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인간중심주의적인 편협한 구원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18]

샐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인간이 가진 수학적 이성과 동물이 가진 실천적 이성을 구분하면서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하다고 할 필연적 근거는 없다고 논박한다. 이런 인간중심적 주장은 이성/감정, 정신/몸, 인간/다른 동물 사이의 위계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맥페이그는 동물, 특히 고등동물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에 기초한 실천적 이성(친절, 용감, 우정, 인내, 관대함 등)을 인간의 수학적 이성보다 더 열등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creation) 자체를 하나님의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세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만약 우리가 세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 참사 현장에서 산채로 매장당하는 모든 가축들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 안목을 가진다면 우리는 구제역 파동 때 생매장되는 동물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겹쳐 볼 수 있게 된다.[19]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의 하나님

필자는 논의를 성서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 물론 기독교의 성서는 동물권을 옹호하기 위한 책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 성서는 노예제와 성차별을 옹호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서가 인간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읽힐 필요는 더 이상 없다고 본다. 성서가 노예제도와 성차별을 철폐하는 데 큰 영감을 준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동물의 해방과 구원에 대해 새로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영미 교수의 말대로 이 세계에는 수많은 창조설화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인간의 창조 이외에 식물과 동물의 창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면 성서의 두 창조설화(창 1:1-2:3과 2:4-3:24)는 모두 식물과 동물의 창조를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0] 이 말은 성서의 창조신앙이 이 세계를 인간의 단독 생활무대로 보지 않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땅과 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서 동물은 인간의 먹을거리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처음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에게 채식을 명령하신다.[21] 노아의 방주 이후에 육식을 허용했을 때에도 고기는 취할 수 있지만 "피째 먹지 말라"고 경

18)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동물과 육식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에서 이정배 교수의 글을 참조하였다.
19) 위의 책에서 전현식 교수의 글을 참조하였다.
20) 위의 책에서 이영미 교수의 글을 참조하였다.
21) 창세기 1:29-3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

고하면서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한다.[22] 더 놀라운 사실은 성서에서 이러한 육식허용이 '임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육식이 중지되고 다시 본래의 채식으로 돌아가는 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23] 사실 성서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동물이 가진 영에 대한 언급도 있고,[24] 인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동물은 영안(靈眼)도 가지고 볼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으며,[25] 동물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26] 나아가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한 규범을 제공하기도 한다.[27] 무엇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의 계획안에 있음을 강력히 증언한다.[28]

동물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의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P. & A. H. 휘터만은 『성서 속의 생태학』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길가메시의 방주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성서에서는 동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그들은 인간과 동등하게 독자적인 생명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역설한다.[29] 노아의 방주와 길가메시의 방주의 결정적 차이는 노

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구절은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라'는 창 1:28 바로 다음에 나온다.

22) 창세기 9:1-4,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23) 이사야 65:17-25,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24) 전도서 3:18-21,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25) 그 대표적 말씀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이다. 인간 발람은 칼을 뽑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오직 나귀만이 그 사자를 보고 멈추어 섰다. 여기서 동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차리는 존재자로 그려지고 있다.

26) 욥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비웃는 친구들을 향해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 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욥 12:7-9)고 말한다.

27) 잠언의 지혜자는 개미, 바위너구리, 메뚜기, 도마뱀과 같은 보잘 것 없는 곤충이나 동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의 길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어라."(잠언 6:6-8)

28) 로마서 8:18-22,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 바빌로니아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길가메시이고, 그 역시 기원전 약 1,200년경에 방주를 만들어 목숨을 구하라는 그의 신의 명령을 받는다. 길가메시도 자기 배에 동물을 태워야 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 있는 동물들을 태워야 했다. 하지만 그의 신이 내린 지시 내용은 좀 다르다. "… 각종 생명이 있는 정자들을 배에 실어라." 길가메시는 동물 자체를 싣지 않고 그 정자만 싣도록 명령을 받았다. 동물 수컷의 정충만 싣도록 명령 받았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정자에서 동물이 스스로 생겨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았다. '모든' 동물 암수 한 쌍

아가 거대한 방주를 짓고 동물계 전체를 구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핵심은 '모든 동물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 휘터만 부자(父子)의 주장이다. 더구나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대홍수 이후 길가메시의 생존과 복지만을 약속한다. 하지만 성서의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위에 걸어두시고 인간과 동물(자연, 땅)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다.(창 9:8-13)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동물의 구원 문제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좀 더 깊숙이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파괴나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홍수'는 단지 많은 비가 내린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큰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다.(창 7:11)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모르고서는 '큰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다.(창 1:2) 물로 가득 차서 마른 땅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혼돈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때 하나님은 물 가운데에 '궁창'(dome)을 만들어 그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분리하신다.(창 1:6-7) 그 결과 마른 땅이 창조된다. 그렇다면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이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기이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이 아래로 쏟아졌다는 말이다. 즉 '홍수'란 이와 같이 궁창을 통한 물의 분리를 취소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본래의 상태,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물로 가득 찼던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첫 번째의 창조세계를 끝내기로 하셨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타락, 형에 의한 아우의 살인,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온갖 죄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 자체를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 세계를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초기상태로 되돌리시려는("reset")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다. 그것이 바로 '홍수'였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파괴와 멸절의 이야기로 읽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사야 65:17)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주(方舟)는 히브리어로 '테바'(*teba*)인데, 배라고 부르기 적절치 않다. 그것은 상자와 같은 배다. 아기 모세를 구했던 갈대 상자와 같이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런데 이 테바는 바지(barge)선처럼 자체 동력도 없고 조향타도 없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은총에 달려 있음을 상징한다. 바로 이와 같은 방주가 나침반도 없이 그리고 노도 없이 성난 태고의 원시의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 있는 노아의 방주는 창조 이전 본래의 혼돈과 공허의 지점으로, 즉 만물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0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것이 '홍수'의 의미이다.

씩 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길가메시는 자시 방주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든지, 은이며 금이며 …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든지, 각종 생물의 정자를 그 안에 넣었다." 이상 A. P. & A. H. 휘터만, 『성서 속의 생태학 : 성서에서 찾아낸 지속가능성의 원형』(광개토, 2004)을 참조함.

마침내 “지면에서 물이 걷히고”(창 8:13)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린다. (이 노아의 번제로 최소한 한 종 이상의 동물이 멸종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동물의 암수 한 쌍만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8:21)고 하신다. 이 선언은 실로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홍수’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소멸되었음을 하나님은 깊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일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다. 홍수 이전 첫 번째 창조세계 속에서 인간은 땅과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자 땅도 저주를 받아 전에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창 3:18) 하지만 홍수 이후 두 번째의 창조 이야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인간들 때문에 또 다시 땅을 저주하거나 멸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하자면 ‘연좌제’처럼 하나로 묶여 있던 인간의 운명과 땅의 운명의 연결고리를 해체하시며 인간으로부터 땅(자연, 동물)을 해방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파멸할 때 자연도 함께 파멸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셨던 명령과,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리셨던 명령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이 바로 성서학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문화명령’으로 알려진 구절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끝. 더 이상 없음!]”(창 9:1) 여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거나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지 않다. 불행히도 많은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중요한 차이에 주목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문화명령’을 철회하고 계신 것이다. 아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셨기 때문일 것이다. 성서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이고 지금 우리는 홍수 이후의 세계(post-flood world)를 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에게 내리셨던 ‘문화명령’이 더 이상 지금 우리들에게 유효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문화명령’의 후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간단히 말해, 홍수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서적으로 홍수 이후 시대에 땅과 그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인간의 지배(dominion) 아래 있지 않다. 땅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더 이상 인간의 운명에 묶여 있지도 않다.[30] 땅(자연, 동물)에게는 인류와 독자적으로 살

아갈 권리와 길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의 절정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무지개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류의 지성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단순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창 9:9-10)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누구와 맺고 계신지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1] 이 짧은 창세기 9장 안에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와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고 계신지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새 생명의 무지개 언약은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동물'(땅, 자연)과 맺어진 언약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땅(자연, 동물) 사이의 '삼자계약'이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수 이후에 땅과 또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지배권(dominion) 아래 있지 않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언약의 합법적이고, 적법하며, 독립적인 계약주체 혹은 인격체(person)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독한 인간중심적 성서독해는 창세기 9장의 이러한 단순한 핵심을 외면했고 또 보고도 못 본 체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오해해왔다. 우리는 순진하게 하나님이 또 다시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는 것이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창 9:11,15)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보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창 8:21) 하나님의 새 언약의 요지는 하나님이 다시는

30)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 사이의 이런 중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다. 홍수가 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7)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첫 번째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첫 번째 행위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복을 주신다. 성서의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창조에서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던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창 1:21-22)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다.(창 8:17) 성서의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31)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등이다.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충격적이지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에게 우호적이거나 인간에게 편애를 베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런 하나님은 분명 우리 눈에 기이하고 낯설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성서는 지금 하나님이 단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생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희망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 있다. 역설적으로 희망은 이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급속히 나아가는 이 때 생명에 대한 희망은, 역설적으로, 인간 때문에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이 무지개의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의 운명의 자연의 운명을 분리하신 이 새 언약의 하나님에게 있다. 탐욕과 무지로 결국 자기 파멸로 치닫고야 마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무지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폭정과 학대에 시달리는 모든 생명들, 특히 모든 동물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역사’가 곧 ‘생명의 역사’의 다가 아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에서 그것을 너무도 확실히 보여주었다.[32]

푸줏간의 그리스도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회화를 통해 서구의 이성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유독 성서의 십자가 책형(磔刑)에 집착했다.[33] 거기서 현대인의 비극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화가로서 세상에 맨 처음 내놓은 작품도 1933년작 ‘십자가 책형’[그림 1]이다. 사실 베이컨은 피카소를 가장 존경했다. 특히 피카소의 자유로운 구성과 해체된 형태의 재구성, 열정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이컨이 십자가 책형이라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피카소의 1930년 작 ‘십자가 책형’[그림 2]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베이컨의 그림이 무언가 심상찮다. 십자가에 달린 인물은 인간이라기보다 앙상한 뼈만 남은 까마귀처럼 보인다. 1950년 작 ‘십자가 책형 습작’에서 이제 사건의 배경은 이제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공간 안으로 파고든다. 급기야 그의 1962년 작 ‘십자가 책형 습작’[그림 3]에서 예수는 도살당해

32) 엘런 와이즈먼, 『인간 없는 세상』(랜덤하우스코리아, 2007)을 참조하라. 그는 과학적으로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2일 : 펌프 작업이 중단된 뉴욕의 지하철역 침수. 1년 : 고압전선의 전류로 매년 10억 마리씩 희생되던 새들이 번성. 3년 : 도시의 따뜻한 환경에 서식하던 바퀴벌레들이 멸종. 10년 : 벽에 간 금이나 느슨한 이음매로 흘러들어온 빗물로 인해 목조 가옥부터 허물어지기 시작. 20년 : 인간이 즐겨 먹던 밭작물들이 인간의 입맛에 맞게 개량되기 전의 야생 상태로 회귀. 500년 : 원시림 상태로 돌아간 교외 지역에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도구들이 여전히 존재. 3만 5천 년 : 생물체에 치명적인 납 성문이 마침내 토양에서 전부 씻겨나감. 10만년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인류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 30억년 :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갖가지 생명체가 지구상에 번성. 영원히 인간이 남긴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전파는 외계를 부유.”

33) 베이컨의 그림과 미학에 관해서는 김현화, 『성서, 미술을 만나다』(한길사, 2008), 313-333을 참조하였다.

정육점에 걸려 있는 벌건 고깃덩어리가 된다. 이 그림은 십자가 책형이라기보다 차라리 푸줏간의 풍경을 그려놓은 것 같다. 충격이다.

베이컨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촉각적' 충격을 노리고 있다. 왜 일까? 플라톤 이후 서양철학은 감각을 이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배제했다.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자들도 감각을 오류와 타락의 원천으로 여기며 철학의 밖으로 추방했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중에서도 정신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시각과 청각만이 중시됐다. 하지만 베이컨은 지금 이성을 향해 상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를 향해 하강하기 위해 '촉각의 예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몸을 이상화하여 그 아름다움의 극치에서 신의 형상을 포착하려 했다. 하지만 베이컨은 오히려 그 몸뚱이를 난도질하여 푸줏간의 고깃덩어리로 끌어내린다.[그림 4] 이른바 '회화의 폭력'이다. 끔찍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는 지금 소위 합리적인 몸 아래 웅크리고 있는 원초적인 신체, 즉 들뢰즈(Gilles Deleuze)가 말하는 '기관 없는 신체'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이컨의 그림에는 얼굴이 없다.[그림 5,6] 얼굴은 인간의 오감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지워버린다. 기관들을 지운 얼굴은 그냥 '머리'가 된다. 지각이 아니라 촉각이 된다. 모든 감각의 시작인 촉각이 된다. 사실 얼굴은 주체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에서도 이 얼굴이 중심이다. 그런데 베이컨이 자기의 그림에서 얼굴을 지워버린다. 그가 이렇게 얼굴을 지울 때 그는 근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주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인간에게서 이성을 빼면 감각이 남는다. 감각의 주체로서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베이컨의 작품에서 인간은 종종 동물과 하나가 된다. 아이는 개처럼 기어 다니고,[그림 7] 여인의 입에서는 멧돼지의 어금니가 자라며,[그림 8] 투우사는 소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그림 9]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동물적인 순간은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라고 한다. 비명소리는 정신의 소리가 아니라 동물적인 몸이 내지르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이컨이 그린 교황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그림 10, 11]

이렇게 베이컨의 회화에서는 인간을 동물 위에 올려놓던 근대 인간중심주의가 무너진다. 고전 예술은 미의 완성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려, 혹은 신이 되려 했다. 하지만 베이컨은 거꾸로 짐승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것을 들뢰즈는 퇴행(退行)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성을 해체시켜 인간을 동물로 되돌리는 것을 그는 퇴행이기는커녕 오히려 '창조적이며 동시적인 역행(逆行)'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인간중심주의는 이렇게 과학에서, 철학에서, 그리고 예술에서 무너지고 있다.

사실 도살당한 동물그림은 베이컨 이전에도 있었다. 렘브란트의 '도살된 소'[그림 12]와 수틴의 '고깃덩어리'[그림 13]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베이컨처럼 명시적으로 푸줏간에 달린 고깃덩어리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동일시한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베이컨의 그림이 치마부에(Cimabue, 1272~1302)의 '십자가 책형'[그림 14]을 변형하여 그린 것이라니 한바탕 신성모독 시비가 날만도 하다. 베이컨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 짐승 형체를 전형적인 종교예술 형식인 삼단제단화에 담음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그의 이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시도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이제는 왜,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성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살당

한 동물'으로 비유하지 않았던가. 누가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행 8:32)고 말한다. 바울도 시편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고 말한다.(롬 8:36) 예수는 사형수였다. 신의 아들이던 그도 십자가 위에서는 한낱 도축되는 짐승과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의 말처럼,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부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동물이 됨으로써 비로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34] 하나님은 육체를 향해 하강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성을 향해 상승하기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란체스코와 모든 피조물의 민주주의

성 프란체스코는 '형제 태양과 자매 달의 찬양시'(Canticle of the Brother Sun and Sister Moon)에서 깊은 생태적 영성의 세계를 열어준다. "나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반복해서 노래하는 시인은 태양, 달, 별, 바람, 공기, 구름, 물, 불, 땅, 그리고 심지어 육체의 죽음까지도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한다. 가히 프란체스코 영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시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도, 만물의 폭군도 아니다. 다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형제자매인 '동료 피조물'(fellow creature)이다. 기독교를 생태파괴의 주범이라 지목한 린 화이트(Lynn White, Jr.)조차도 이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민주주의"라 부르면서 프란체스코의 영성을 칭송한 바 있다.[35]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무한적인 지배나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사상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모든 피조물의 평등, 혹은 '모든 피조물의 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프란체스코의 이러한 '만물 평등주의'가 우리 한국인의 사유세계에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사상가들 안에는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만물을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보려했던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다. 고려 중기의 문인인 이규보는 만물이 각각의 겉모습에서 보여주는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동일성으로 인해 모두 하나라는 차원에서 '만물일류'(萬物一類) 사상을 펼쳤다. 조선 전기의 김시습은 '여물'(與物), 즉 사람과 만물이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쳤다. 무엇보다도 실학자 홍대용은 천지만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우주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사람과 만물을 균등하다는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펼쳤다. 그는 "왜 너는 하늘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느냐?"고 질타하면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그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36] 이제 프란체스코와 한국의 사상가들이 만나야 한다.

---

34)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3』 (휴머니스트, 2014), 226-243을 참조하라.
35)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967 중에서.
36)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을 참조하라.

프란체스코 영성의 핵심은 겸손(humility)이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겸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인간 전체가 가져야 하는 겸손이었다. 프란체스코는 창조세계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서의 인간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노력했으며, 대신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의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프란체스코의 찬양시에서 인간은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하나님이다. 인간은 자신의 형제자매인 다른 모든 '동료 피조물'과 함께 손을 잡고 동그랗게 서서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창하고 있는 것이다. 프란체스코의 찬양시에 나타난 우주관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서의 세계관이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모든 학대를 중지시키고 모든 생명과 함께 평화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서의 견해로 돌아가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다. 기독교가 세워놓은 인간중심주의의 바벨탑을 기독교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무지개의 하나님, 즉 이 땅의 인간과 동물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창 8:21)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 앞에서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을 약속하신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쉐트'(*keshet*)인데 원래는 무기인 활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특히 이 땅에서 인간의 폭력과 학정 아래 고난 받는 모든 동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왜냐하면 무지개의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동물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며 또한 인간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당신 앞에 당당한 계약의 주체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무지개의 하나님이다. 사실 한국인들은 무지개와 친숙하다. 한국인들은 색동옷을 입는다. 보통 한 살에서 일곱 살까지의 아이들이 색동옷을 입지만, 고대에는 성인 남녀도 색동옷을 입었다.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과거 몽고인들은 한국을 가리켜 '소롱고스'의 땅이라 불렀다. '소롱고스'는 '무지개'라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무지개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실생활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 까치를 위해 감을 다 따지 않은 '까치밥',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내 뭇 생명과 더불어 먹고자 한 '고시래,' 콩을 심을 때 세 알을 심어 한 알은 새가 먹고 다른 한 알은 땅 속 벌레가 먹게 한 농부의 배려, 길을 나설 때 미리 지팡이로 땅을 쿵쿵 울려 벌레들이 도망하게 한 세심한 나그네의 배려, 하루 수십 리씩 걸어야 하는 소들을 위해 소장수들이 소에게 신겨준 '쇠짚신', 작은 생물이라도 해할까봐 뜨거운 물도 식혀서 버렸던 어머니들의 세심한 살림살이, 소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은어를 사용하며 한순간에 소의 명줄을 끊고자 노력했던 백정들의 우직한 배려, 한 집안에서 더불어 먹고 사는 존재들을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생구(生口)라고 불렀던 포용적인 마음,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실천했던 채식위주의 삶 등 ….[37]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동물의 문제는 이렇듯 서구에서 수입된 의제가

아니라 무지개 나라의 우리 삶과 사상에서 면면히 흘러왔던 아름다운 우리 것에 대한 반추(反芻)이자, 동시에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잊고 오늘도 매일의 삶에서 동물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들의 추함에 대한 반성(反省)이 될 것이다. 그 반추와 반성이 스위스처럼 헌법에 '피조물의 존엄성'(Wuerde der Kreatur)을 명문화하고 동물을 법적 주체로까지 세울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제공할 것이다.[38] 또한 그 반추와 반성이 독일의 동물보호법처럼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물(私物)이 아니라 '동료 피조물'이라 부르는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39]

나가는 말

인간과 동물, 즉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횡단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서의 포스트휴먼(post-human) 신학을 고민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그 신학의 하나가 바로 동물신학이 될 것이다. 서구의 이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 철학과 신학에서 어떻게 환골탈태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에서 동물신학의 시작은 바로 그것을 향한 지난한 작업의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동물신학,' '동물권리신학,' '동물복지신학,' '동물해방신학,' 혹은 '동물민중신학'으로 부르든 아니면 다르게 부르든, 동물을 놓고 전개하는 신학은 모든 인간중심주의적인 주류('몸통') 신학과 철학에 도전하는 비주류('꼬리')신학이 될 것이다. 앞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다."(Wag the Dog) 동물신학은 지금 인간학이 되어버린 말뿐인 신학(神學)을 진정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바꾸는 데 일조할 것이다.

37)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무크지, 「숨」 vol. 01 (2007)을 참조하였다.
38) 1992년 5월 17일에 스위스 연방헌법은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유전공학적 규정을 공포하면서 '피조물의 존엄성'을 명문화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항목을 정했다. "(스위스) 연방은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유기체들의 배아와 유전자의 관리 규정을 공포한다. 이에 연방은 인간, 동물 그리고 환경의 보호는 물론 피조물의 존엄성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제24조 novies 3항) (박상언 엮음,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에서 김형민 교수의 글, 126쪽에서 인용함.)
39)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1986년부터 동물을 더 이상 물권법으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인간이 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동료 피조물'이라 판단한다. 김형민 교수의 소개대로, 이는 창조의 보존에 대한 교회의 신학적 주장이 교회 밖에서 동물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선하게 응용된 사례이다. (Ibid., 154)

참고문헌

구달, 제인. 『생명사랑 십계명』. 바다출판사, 2003.

김현화. 『성서, 미술을 만나다』. 한길사, 2008.

나영춘,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뿐.” 「오마이뉴스」 2011.11.05.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숨」. vol. 1 (2007).

린지, 앤드류. 장윤재 옮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신학의 탐구』 . 대장간, 2014.

박상언 엮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기획.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 모시는 사람들, 2014.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싱어, 피터. 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

알트, 프란츠. 『생태주의자 예수』. 나무심는사람, 2013.

와이즈먼, 앨런. 『인간 없는 세상』.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3』. 휴머니스트, 2014.

최재천. 『인간과 동물』. 궁리출판사, 2007.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동물과 육식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 : “그리스도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롬 8:22)」. 2011년 지구의 날 기념 생태신학 세미나 자료집.

휘터만, A.P. & A.H., 『성서 속의 생태학 : 성서에서 찾아낸 지속가능성의 원형』. 광개토, 2004.

한겨레신문. 2015년 10월 24일. 제16면. “거울 앞에 선 오랑우탄, 인간우월주의를 깬다.”

Grant, Catharine. *The No-nonsense Guide to Animal Rights*. Oxford, UK: New Internationalist Publications Ltd., 2006.

White, Jr.,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967).

발제 2.

인간과 동물권의 관계

이박광문

인간과 동물권의 관계

이박광문 (전 물푸레생태교육센터 활동가)

들어가기에 앞서

동물은 생명이다. 그들도 자의식과 감정이 있고 행복과 고통을 느낀다. 동물권(動物權, animal rights)은 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이다. 일부 익숙해진 용어이나 여전히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다. 국어사전에는 아직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않다.

생태학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다. 환경이 생물에게 조건이기도 하지만, 생물이 환경의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한 생물은 다른 생물과 상호 간에 조건이 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 유기체적 총체는 통합된 하나의 근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천에게 그 근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을 포함해 모든 것은 그 하나 됨 안에 존재한다.

4대강 사업은 정부와 자본권력의 결탁, 이에 기생하는 학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사회는 언제나 그 시대의 바벨탑을 세운다. 그러나 그 화려한 탑은 결국 무너진다. 이 시대는 현대화된 공장식 축산, 동물실험, GMO 등을 화려하게 내어 놓는다. 이는 인류 역사 중에서도 아주 최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런 일들의 작동원리를 잘 살펴보면 결국 맘모니즘이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인간다울 때에야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 이 곳, 이 시간 앞에 부름 받는다. 우리는 이제 동물권의 현실을 마주한다. 그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이다.

동물권의 현실

지난 11월 17일에는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소송 모의법정'이 열렸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변론 능력이 없는 동물이 원고로서의 당사자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미국 그래엄산 붉은다람쥐, 점박이올빼미 등 동물 뿐 아니라, 뉴질랜드 황거누이 강이나 히말라야 빙하 등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이미 회사 같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천에 있는 한 소나무인 석송령은 그 앞으로 땅이 소유되어 있으며 매년 세금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속하며, 한국의 경우 실제로는 산양 뿐 아니라, 붉은박쥐, 도롱뇽 등 많은 시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9월 18일 퓨마 호롱이에 대한 사살을 두고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박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에서부터, 해당 동물원에 대한 처벌과 동물원수족관법에 대한 개정 청원까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다양한 입장들이 오갔다. 그러나 잠깐의 작은 소란이 걷히고 여전히 사람들은 동물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물쇼를 보고 있다.

동물권은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함께 서양 문명 사회를 근간으로 재편되면서 급변한 가치판단에 기인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식 축산은 산업화와 함께 그 역사가 매우 짧은 것이며, 한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100년 전에 똑같이 이 땅에 살던 사람에게는 지금의 육식산업은 '하늘이 노할 짓'일 것이며, 쉽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기존에는 존재했던 동물에 대한 암묵적 권리가 현대의 서양 문명 사회를 근간하여 재단되고 인식되지 않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인식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인권은 단지 가시적인 인권의 현황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화 되지 않은 곳에서 결정된다. 한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들을 안에서의 이야기다. 이 사회 속에서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가시화 된 인권 자체는 좋아지는 것 같으나 사회는 양극화의 악화일로에 있으며, 예전 공장 노동자들은 단지 외국인으로 대체되었다. 동물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달엔 국회 의원회관 2층에 개식용 반대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11월에는 국회 지붕에 '개 도살 금지'라는 레이저 시위가 있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시적인 동물권 운동의 증가가 동물권을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이 처한 실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다.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쓴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소유의 의미를 수정한 용어다. 펫숍이 비판을 받으며 동물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기동물의 수는 2015년 82,082개체에서 2016년 88,559개체, 2017년에는 100,715개체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고기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넘어설 산이 많으나 점점 대중화 되어 가고 있다. 육식에 대한 비판과 채식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육류의 소비량은 감소된 적 없이 계속적인 증가추

세에 있다. '동물축제 반대축제'에서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생태에도 맞지 않고 축제 후에는 죽임을 당하는 동물축제들의 잔인함을 고발하였다. 하편 '동물축제 반대축제'는 그 자체로 동물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잔인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물혐오 사회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장애인혐오, 난민혐오 등 그 사회의 차별적 구조가 인권의 가시화를 막는다. 동물권은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한데 "생명을 가진 존재 중 동물에게만 권리를 한정 지을 수 있는가", "동물을 이용하는 건 먹이사슬의 자연법칙 아닌가", "결국 동물권이라는 것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인간이 부여하는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동물들의 대우가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는 없다. 곧 그런 견해들이 동물학대에 대한 비판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적 오류가 잔인함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실제 힘을 갖게 되는 사회구조적 상태가 동물혐오다. 여자를 좋아한다고 여성혐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고양이 집사라고 자처하면서도 동물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동물혐오다.

혐오의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혐오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혐오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남의 성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날이 서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는 성대결 구도가 아니다. 대결 구도라는 것은 둘이 동등한 위치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덮어둘 수 없게 된 지속적인 차별의 구조, 곧 이 땅의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런 현실 속에서 착취를 강화하는 진영과 그 폐해를 규탄하는 진영이 있는 것이다. 여성도 여성혐오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이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가해자의 시선으로 가두는 일이며,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성혐오'다. 이처럼 혐오는 공기 같아서 세밀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혐오를 하고 있는 이들은 인식하기가 어렵다. 여기서의 혐오는 차별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뜻한다. 낚시에 사람을 속인다는 두 번째 뜻이 있는 것처럼 혐오에는 개인적 혐오감이외에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를 말하는 두 번째 뜻이 있다.

그러한 가부장제는 심지어 성경의 내용까지 혐오적 시선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성자 어거스틴의 경우 "여성 자체를 놓고 볼 때,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오직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는 초대 교부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내에 꾸준히 존재해 오고 있는 가부장적 시선 중 하나다. 이렇듯 종교 안에서도 그 사회의 혐오는 깊게 숨어든다.

마찬가지로 우린 동물에 대해 정말 혐오자가 아니었는가? 만약 200마리의 개를 희생하면 1명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을 해칠 수 있거나 농작물을 해치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동물을 먹는 것 자체가 동물혐오가 아니

다. 마찬가지로 동물 좋아한다고 동물혐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앞 선 질문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인권과 동물권의 대립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동물혐오다. 단지 인간과 같은 영혼의 유무가 지금과 같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그것이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며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동물혐오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동물은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 피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혐오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혐오하는 위치에 있는 이가 혐오자임을 인지했을 때만이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된다.

다시 돌아보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의 문제를 마치 동물과 인간 간의 갈등으로만 보이게 하는데, 이는 동물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장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이는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동물공장을 유지하거나 육식을 하는데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공장식 축산의 현장에 종사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한 전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맘모니즘에 맞춰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은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파괴, 온난화와 함께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동물혐오는 직접적 당사자들도 함께 주변화 시키면서 갈등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 계층에게 돌려버린다. 싼 값에 과도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동물과 현장의 사람들 탓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혐오자라는 인식 앞에 그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반복되는 논리 안에 갇히는 것을 선택하곤 한다. 그래서 오히려 동물권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되곤 한다. 그것이 혐오의 힘이다. 우리가 동물혐오 사회 속에 있기에 그 혐오가 우리의 판단에 깊게 스며든다. 강물에 서있으면 조금씩 그 흐름에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보면 동물혐오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 힘에서 버티려면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동물혐오라는 작은 조각배에서 그 밖으로 나가는 일은 폭풍우 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진짜 평화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초대하고 있다. 그러한 소망을 본다면, 폭풍우의 두려움 속에서도 빛을 향해 작은 배 바깥으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다. 그동안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혐오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혐오를 버린 인식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

동물의 생태적 위치

동물권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들로 이뤄진다. 그러나 동물혐오적 요소를 걷어내고 나서, 이를 층위에 따라 정리해 보자면 크게 '종 내 동물권', '전일적 동물권', '관계적 동물권'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생명의 유기체적 총체 속에서 동물의 생태적 위치를 통해 동물다움, 곧 동물의 창조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층위의 동물권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흙' 곧 '토양'은 단순히 모래나 진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유기체와 무기물이 섞여 있는 생명의 근간이다. 토양은 생물과 모재(母材,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이뤄진 알갱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땅의 기후에 따라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게 되는 토양의 일정량이 있다. 일정한 양이 있는 것이기에 토양은 재생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개발이 만들어낸 유래 없는 큰 변화가 토양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토양이 만들어 지는 과정은 인간이 규정한 경쟁의 법칙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한 경쟁이 자연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의류가 나타나고 그로인해 생겨난 바탕에 개척식물이 지의류를 밀어내고, 다시 그것을 더 큰 초본이, 그 이후에는 나무가, 그리고 나무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무가 정점을 차지하여 극상(極相, 천이에 의해 식물의 군집 조성이 변화하다가 그 지점에서의 생태적 조건에서 장기간 안정을 지속하는 상태에 있는 군집)림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토양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자. 풀이나 나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지의류가 먼저 바탕을 마련한다. 이제야 풀이 들어와서 춤을 춘다. 드디어 토양다운 토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무는 이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토양을 풍성하게 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의 고리가 빠진다면 토양의 풍성함은 존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탈락되지 않는다. 지의류도 개척식물도 각자 그들이 극상인 환경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에겐 '극상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것만 볼 줄 아는 인간만의 분류일 뿐이다. 더 작은 미소공간을 들여다보면, 숲 안에도 지의류나 개척식물이 여전히 극상이 되는 작은 공간들이 있다. 천재지변이 닥쳐서 토양이 사라졌을 때 다시 토양이 회복되는 유기적인 연결이 작동한다. 경쟁은 일부의 가치관일 뿐 객관적 사고의 정점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동시존재다.

그러나 비에 의해 끊임없이 쓸려 내려가는 것이 토양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동물이 있다. 동물들의 상호 연결은 물의 흐름과 함께 바다를 향해서만 흘러가는 일방적인 물질순환의 흐름을 되돌린다. 물에 있는 유기물이 다시 지상으로, 그리고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한다. 단순히 식물만 있을 때 존재하던 생명의 총량은 동물에 의해 더욱 풍성해진다. 이런 유기체적 하나의 근본 속에서 동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하나 된 근본'이 앞으로 이뤄질 논의들의 핵심이다.

두 개의 인간성

인간은 생태계 속 동물의 역할 속에서도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종이다. 비버 댐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인간의 활동 역시 생물다양성을 증가시켜 왔다. 숲 가운데보다 숲 가장자리에서 더욱 생물다양성이 높은 것을 '가장자리 효과'라고 한다. 인간은 그런 가장자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는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작 또한 가장자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소다. 게다가 전체 대지의 수준에서 본다면 단조로울 수 있는 식생에서,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작물의 종이 전체 균

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늘어난다면, 전체 속에서 생물 다양성은 증가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 된 근본 속에서 풍성함을 더해왔다.

유기체적 하나라는 전일성, 곧 하나 된 근본에서 본다면,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만의 독특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의미는 더욱 풍성해 진다. '인간답다'라는 것은 풍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지의류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 또한 만물의 돌봄이듯, 인간 또한 그렇게 인간다웠다. 인간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개념과 인간이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은 하나 된 근본 안에서 조화로웠다. 여기서의 인간은 생태적 인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가 땅에 속해 있던 시대, 곧 땅에 의해 지파가 결정되던 시대 때까지만 가능했다. 인간이 존재의 근본에 소유된다고 믿는 문화가 연성의 문화라면, 인간이 다른 존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강성의 문화다. 지금의 서양 문명이 대표적인 강성의 문화에 속한다. 강성의 문화 속에서 인간은 다른 이들을 약탈하고, 흙과 땅을 소유했다. 숲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제거되고 파편화 되었으며, 조화롭고 풍요를 더했던 농업은 오히려 조화와 다양성을 파괴하는 첨병으로 돌아섰다. 정복은 더 이상 하나 된 근본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게 되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의 주체성을 약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변명하게 되었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것이 조화가 아닌 경쟁으로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는 서양 문명이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 인간만의 능력에 의미를 두더라도 조화로웠으며 함께 신비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동물은 소유물이며 차이가 아닌 우월성이 인간을 정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서양 문명이 객관적 사고의 정점인 것은 아니다. 변명을 포함하는 일종의 세계관일 뿐이다. 하나 된 근본 속에서 인간성을 정의하지 않고, 소유와 단절된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 곧 동물혐오적 약탈 문명을 근거로 인간성을 정의한다. 그런 전제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약탈의 근거가 되거나, 반대로 둘의 차이가 없기에 약탈도 가능한 것이라고 믿도록 만들 뿐이다. 여기서의 인간은 파괴적 인간이다.

종 내 동물권

하나 된 근본 속에서 인권은 동물권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동물권은 하나 된 근본에 속해 있는 하위 개념이다. 그런 동물권에 속해 있는 하위 개념이 인권이다. 곧 인권이란 인류에게 있는 동물권이며, 다른 종에게는 그 종 내의 동물권이 있다. 이것은 인간만의 특별함과 탁월함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 된 근본 속에서 그것이 더욱 드러난다.

인류에겐 인간다움이 있고, 각각의 종에겐 그 종다움이 있다. 많은 조류들의 육아 장면에서 가장 활발하고 덩치가 큰 새끼가 가장 많은 먹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새끼들에게 줄 수 있는 먹이가 적을수록 더 두드러지는 장면이다. 인권의 시선에서는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인간다움이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아니다. 낙오되는 새끼를 인간이 대신 키워준다

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개체는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적응할 수 없다. 자원이 부족한 야생에서 존재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이 있다. 어미새는 자기 목숨에 비견할 정도로 새끼들을 키워낸다. 모든 새끼들이 자기 목숨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충분한 먹이가 없는 시대에는 메말라가는 새끼들을 봐야 한다. 바로 그들의 그 현실 안에서 그 개별의 새끼들과 어미 안에 있는 그 무엇이 그들 종 내의 동물권이다. 인권이 인류 안에서 개인이 처한 개별의 현실인 것처럼, 종 내 동물권은 그 종 내에서, 각 종의 종다움 속에서 존재한다.

뱀의 세계는 3차원적 온도로 이뤄져 있다. 박쥐의 세계는 3차원적 소리의 세계다. 개구리에게는 크기와 움직임이 그 세상을 정의한다. 이들에게 인간이라는 개별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 어떤 온도 범위, 소리 범위, 크기와 움직임으로 환원된다. 인간은 그들과 만나지 못한다. 인간은 뱀의 아이큐를 측정하지만, 뱀의 세계에서 3차원적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치명적 발달장애나 결함일 뿐이다.

주체성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그들의 서식처를 파괴할 수 있고 결정지을 수 있기에 인간이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자가 각자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쌀을 생산하는 것일까? 벼의 입장에서는 단물을 주고 개미로부터 보호를 받는 진딧물과 같이, 인간은 자신의 매력에 빠져 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다. 장내 세균은 어떠한가? 세균의 세계에서도 인간에 대한 개별적 인식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세균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 실재하는 것은 동시의 공동주체다. 인간이 서식처를 파괴한다는 건 인간의 관점이다. 각자는 각자에게서 주체다. 장내세균이 그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듯, 천재지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듯, 뱀, 박쥐, 개구리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거기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가 오직 자신의 주체성 속에 있다. 그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다. 경탄인 것이다.

죽어가는 새끼들을 적극적으로 지켜봐야하는 어미새는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근본적 조화 속에서 이뤄지는 풍성함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경탄뿐이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동물권이 인권인 것처럼, 각각의 종에게 존재하는 그들 내부에 그들의 동물권이 있다. 이는 인간이 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 종 내의 동물권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은 인간다움에 경탄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하나 된 근본에서는 각각의 각자다움이 존재한다. 인간 또한 여전히 그 하나 된 근본 안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 인간이 우주 시대를 말하며 자신이 세운 것에 대단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을 뿐, 여전히 쌀 한 톨, 씨앗 하나 만들어 낼 수 없다. 모든 존재의 주체성은 그 하나 된 근본에서 오며, 그 각자의 주체성은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닿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태양의 빛과 같이 서로를 비추고 있다. 하나 된 근본 안에서 인간은 하나의 조화 속에 있다. 그러한 조화를 기준으로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않음'을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화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동물혐오적인 약탈의 문명에서만 가능한 것 같다. 공장식 축산을 통해 고통 받는 가축들, 그리고 그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동물은 단순한 유기체일 뿐이다'라거나 '이것도 자연법칙이다'라는 것이 동물학대

의 변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류다. 하나 된 근본 속에서는 동물이 유기체여도,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어도 그것이 지금과 같은 동물학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가능하게 했던 논리와 동물차별의 논리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하나 된 근본 앞에서 되물어보자. 과연 그런 선택이 정말 인간다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 된 근본을 바라보는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종 내 동물권은 단순히 각 종 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려는 것이 아니다. 개별 주권의 실체는 하나 된 근본이며, 이에 대한 인식이 핵심이다. 곧 종 내 동물권은 인간이 재단할 수 없는 하나 된 근본에 대한 전제를 비춘다.

전일적 동물권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언 중엔 "나에게 잡힌 동물은 나를 위해 죽어준 것이니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너무나 인간중심적인 시선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뭇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무분별한 사냥은 피하며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갖고 이웃이 된다. 그들에겐 '나를 위해 잡힌 동물'이란 개념이, 각 동물에겐 그들의 권리가 있다는 개념과 상충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나를 위해 잡힌다'는 것이 소유의 당위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렇기에 동물을 잡는 것과 동물 권리는 공존 할 수 없다. 두 문명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 두 문명이란, 하나 된 근본을 근거로 하는 문명과 동물혐오적 약탈의 문명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돌아 볼 수 있다. '나를 위해 죽어준 동물에 감사하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배경 속에서 해석되는지가, 내가 어떤 문명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를 역으로 보여준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일적인 문명 안에 있었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 모든 존재와 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1명의 사람을 살릴 확률이 있다면 200마리 개를 희생할 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이제 그 질문 이전에 다른 질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그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과연 두 개의 문명 중에 어느 문명을 근거로 하여 논의되고 있었는가의 질문 말이다.

닭장 안에 닭의 밀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닭이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수입에서는 이득이 된다. 인권의 문제도 이렇게 해석하면 의문이 풀린다. 누군가 밀려나는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이다. 닭의 죽음으로 얻는 이득이 농장주의 것이듯, 인권유린으로 얻는 이득은 자본가들의 것이다.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장하면 전체 수입은 줄어든다. 불공평한 재분배로 얻은 이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간의 배제를 우선과제로 둔다면 애초에 인간이 부여한 인위적 영광인 지금의 산업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거기엔 모두의 공평한 행복이 존재한다.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가 보여준 모습과 같다. 실제 불행은 약탈을 근거로한 서양 문명이 그 역기능을 감춘 채 화려한 가면으로 다가오면서 시작

된다. 동물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그와 같다. 분명한 손해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정확히는 불공평하게 얻어 왔던 이득의 포기다. 한편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공동 행복이다. 서양 문명 사회에서 인권, 곧 인간의 동물권과 다른 종의 동물권이 이토록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서양 문명에 기반한 사회는 종종 서식지 보호와 지역 개발을 대립하는 가치라고 선동 한다. 그러나 막상 개발의 결과를 볼 때 동물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은 대립되지 않는다. 골프장과 같은 개발이 들어오면서 외부 자본이 들어온다. 외부 자본은 철저히 외부의 이익을 위해 굴러간다. 약자부터 배제되기 시작하여 결국 지역민들의 공동체가 깨지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며 결국 외부자본이 그 땅도 잠식하게 된다. 지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인간과 세상을 잠식해갈 뿐이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일적 관점에서 볼 때 동물과 사람이 공동 운명체임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질리도록 반복되는 지역의 파괴들이 서양 문명을 기반한 사회에서 이토록 효과적으로 위장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비정상적인 육식산업은 온난화의 주범이자 지구의 허파인 밀림을 파괴하는 동력이다. 그 잔인성 앞에서 또한 원주민들의 비명이 있고, 실제 그 산업에 종사하도록 내몰려진 사람들 내면의 비명이 있다. 엄청난 양의 고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분뇨가 쏟아지고 있다. 땅이 수용하기에도 이미 넘치는 양이며 강으로 흘러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그 오염은 사회취약계층의 삶부터 빼앗는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존재는 다른 존재의 원인이다. 분리되고 소유하는 문명은 이 하나 된 원리를 보이지 않게 한다. 혐오구조는 그것들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인간다움이란 하나 된 근본 위에 존재한다. 인권, 곧 인간의 동물권은 다른 종의 동물권과 함께 그 하나 된 근본에 속해있다. 전체적인 구조와 개개의 고통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일적 동물권의 특징이다. 전일적 동물권에서 인권과 다른 종의 동물권은 하나가 된다.

전일적 동물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 된 근본 자체가 주체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 대지의 한 조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전일적 동물권이다. 전일적 동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념체계다. 전일성에 대한 인식은 서양 문명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인간은 우주로 뻗어 나간다. 우주 산업에 영광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기술력을 얻기 위한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10배도 넘는 연봉의 차이와 불노소득이 존재한다.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산력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는 불공평한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양극화, 곧 구조적 약탈을 뜻한다. 이 사악이 경제성장과 같은 인위적인 영광에 의해 가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은 다르다. 우주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조가 옳지 못하다면 악한 것이 맞다. 마찬가지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감정 자체는 주님이 주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산업구조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사실을 가리는 것이 약탈의 문명, 동물혐오다. 구조적 약탈은 단절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온다. 여기서의 '단절'이란 '전일성'에서의 단절이다. 동물의 동물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든

다는 것은 동시에 전일적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전일적 동물권이다.

전일성의 망각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깨지고, 양극화가 가속화되며, 계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다. 맘몬은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만, 사람들은 맘몬 없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린 사회다. 전일적 동물권은 그러한 서양 문명에 기반한 한 쪽의 세계관에 의해 잊혀진 다른 편의 세계관이다. 한 사람의 치료 가능성을 두고 200마리 개의 희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이는 치료 자체도 아니고, 가능성이란 단서를 붙이고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한 질문이다. 잔인한 실험과 희생이 정당한가? 그 희생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는 구조와 기준은 어떤가? 단지 모호한 가능성이라는 단서만으로는 함부로 동물실험이 이뤄질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강요되는 희생이 그 사회 전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전일적 동물권은 인간에 대한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관계적 동물권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관계적 동물권은 종 내 동물권과 전일적 동물권을 전제로 둔다. 관계적 동물권이란 한 사람이 당면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의 실체다.

단순히 어떤 개인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둘 때엔 개발도상국의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보다 덜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적 동물권은 단순히 절대적인 영향 보다는 과정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우리는 글로벌화 된 서양 문명 산업사회 속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 곧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이런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공동운명체로서의 하나의 현실 속에 자기 자리가 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전일적 지향점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또한 관계적 동물권이라 할 수 있다.

길고양이에 대한 난제를 통해 관계적 동물권의 과정적 특징을 살펴보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다. 생태적 측면에서 길고양이의 존재는 그다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취약해진 생태계에서 길고양이는 폭탄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척박해진 도시에도 야생동물은 살아간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절대 사료만 먹지는 않는다. 고양이는 취약한 생태계에서 최고의 교란 요인 중 하나다. 인식되지 못하는 취약한 작은 존재들은 그렇게 사라져 간다. 그렇다고 지금 눈앞의 길고양이를 먼저 보호하고 있는 어떤 개인이, 동물권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는 거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인간다움' 곧 전일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는 동물권의 회복과 분리될 수 없다. 그는 새로운 고민 속에 채식을 하게 되던지 또 다른 그만의 실천을 해나가며 '공동 회복의 과정' 속으로 들어 갈 것이다. 반면에 그가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자기 느낌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관계적 동물권은 거기에서 끝난다. 그것은 전일성이 아니라 소유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동물혐오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보라. 일부 동물권의 회복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의 진실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 그에 맞서는 것이 관계적 동물권이다.

이제 한국은 서양 문명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더 이상은 온전한 전일성 위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물건, 의복, 식재료, 화장실 등 모든 것이 이미 다른 존재의 약탈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여전히 채식이 더 나은 방식이긴 하지만, 집약적 농업의 수입 농산물, 화석에너지를 쓰는 농업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글로벌 경제구조 속에 있다. 세계 경제 글로벌화 속에서 전 지구는 이제 서양 문명의 단일한 문화 속에 놓여지고 있다. 서양 문명은 전일성을 벗어나 인간과 그 이외의 존재들에 대한 위계를 설정한다. 그 안에서 동물들의 현실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게 되었다. 이는 성경의 정복하라는 명령을 따른 결과가 아니다. 생태적 인간의 정복이 아니라, 파괴적 인간의 정복을 따른 결과다. 조화에서 벗어나 지속불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이미 기울어져 있는 구조이기에 단지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권만으로는 동물혐오적 약탈에 동참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서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닿아 있는 현실의 기울기 그대로가 강화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종의 고유성을 보장하고 전일적 균형을 회복하려 한다면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 어떤 방식으로든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도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에 대답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얻은 고기를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양으로 먹고 있을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외면하거나 변명하는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니다. 맘몬에 저항하는 인간은 외면과 변명에도 저항해 왔으며, 맘몬을 우선으로 둔 인간에게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은 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그 연결성 속에서 나와 현실의 관계가 관계적 동물권이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 에너지 사용, 휴대폰에 사용되는 콜탄 등 바로 나의 존재와 닿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동물혐오다. 지역의 현안은 특별히 내가 서있는 곳에 주어진 문제다. 한국에는 개도축 문제, 동물원과 동물축제, 유기동물들과 한국의 축산업이 있다. 미국에선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과 함께 동물실험 반대 시위가 퍼져갔으며 결국 미군과 기업의 동물실험의 축소에 기여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에 둔감해도 되는 것 또한 바로 동물혐오다. 물론 원해서 이득을 얻는 자리에 간 것이 아니며, 과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공기처럼 두르고 있던 동물혐오를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진다.

관계적 동물권에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내가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 주체는 바로 그 ‘관계’이다. 관계가 주체라는 개념은 환원주의적 사고의 서양 문명에서는 쉽게 인식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는 연성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개념이기도 하다. 관계가 주체가 될 때 절대 개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풍성해진다. 바로 그 개인이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이뤄가는 공동 회복 과정이라는 실체가 관계적 동물권이다.

기독교와 동물권의 관계

10월 4일은 세계동물의 날이자 동물수호성인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이다. 천주교와 성공회에서는 이 날에 맞춰 동물축복식을 집례하고 있다. 동물축복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그보다는 소극적인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위치와 함께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겠으나 우리는 이제 그 이전에 존재할 수 있는 질문을 있다는 걸 안다. 어느 문명의 논리를 기반으로 해석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말이다.

'나를 위해 죽은 동물'이라는 표현은 언뜻 예정론을 닮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민의식과 같은 소유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탈의 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일 뿐이다. 전일적 문명 속에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한 고백이자 하나 된 근본으로의 회귀에 닿는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주로 서양 문명에 근거한 강성의 문화를 전제로 둔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자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일적인 연성의 문화를 기반으로 둔 기독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 된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할 때, 기독교는 전일적 인식을 갖기에 절대 불리한 종교가 아니다. 인간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해와 달로, 비와 바람으로, 대지로, 식물, 동물, 또 인간의 몸이 되어 스스로의 무한성 곧 자기의 일부를 제한하시고 또 사랑하신다. 하나 된 근본에서의 인간의 정복은, 서양 문명 속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는 정복과 완전히 다르다. 다른 종의 풍성함과 연결되지 않으면 전일적 인간일 수 없다.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마음껏 반응하는 일 뿐이다.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에 숨(히ruach)을 불어 넣은 결과가 살아 있는 혼, 곧 생령(히nephesh)이라고 말한다. 이 단어는 동물 창조(창1:21, 24) 때도 쓰인 단어이며 전도서 3장 21절에서도 동물의 혼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nephesh(네페쉬)였다. 타락 이전의 에덴동산에는 육체가 있는 살아있는 혼으로서 동물들이 함께 했듯,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의 구원을 이해할 수는 없다. 박쥐와 뱀, 개구리, 장내세균의 세계에서 영원과 완전함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인간은 알 수 있는가? 사람은 하늘로 가고 짐승은 땅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늘은 인간이라는 종의 나라일 뿐 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박쥐, 뱀, 개구리, 장내세균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그러한 사건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탄뿐이다. 바로 하나 된 근본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우리는 우리다움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다른 동물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 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다. 혹은 그 종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질수도 있다. 여기서는 어떤 해석이 옳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 내 동물권, 전일적 동물권, 관계적 동물권 속에서 다시 해석할 필요성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그동안 '동물권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라는 말은, 서양 문명에 근간한 논리체계로 이뤄진 동물권의

해석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의 해석은 환원주의적인 서양 문명에 의한 논리였다. 우리는 이제 전일적인 하나 된 근본을 통한 새로운 인지를 시작할 수 있다. 해석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 된 근본을 바라보고, 존재의 전일성 속에서, 나와의 세상의 관계가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동물권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고 논의 될 수 있다. 우리는 당면한 동물권의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나 된 근본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뜻한다면 인권과 동물권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인간의 지향점을 전일적 동물권이라고 할 때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이 사회의 현실과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 내에 동물혐오가 어떻게 침투해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와 동물권의 관계

우린 앞서서 동물권의 3개의 층위를 살펴봤다.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통합된 동물권 속에서 인간은 전일성이라는 지향점을 가진다. 동물혐오의 서양 문명 사회의 현실 위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돌아볼 것을 요청받았다.

이러한 동물권을 통해 세상을 만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동물혐오라는 작은 조각배에서 그 밖으로 나가는 일은 폭풍우 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현실과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며, 점점 더 큰 죄책감을 마주하는 과정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이미 죽었으며 나도 이미 그러하다. 우리는 그 죽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어쩌면, 이미 죽었으면서도 약탈을 통해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느냐, 죽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공동의 회복 과정으로 들어가느냐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죄책감은 우리를 잠식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시혜적인 자리에서 내려와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누군가는 채식일 것이고, 개도축 반대 일 수도 있고, 유기동물 보호이거나, 야생동물 보호일 수도 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나의 마음, 나다움이 있을 것이며, 내가 닿는 현실이 있을 것이다. 다만 나에게 당면한 현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동물혐오 때문이라는 분명한 인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 능력 의지하는 적금이나 보험을 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면서, 내 주변에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에 더 관심이 가는지,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렇게까지 소극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를 돌아보자. 그러면 오히려 삶의 진짜 주체가 나였는지 하나님이었는지를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서 나로 부터 온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나는 오로지 내가 아닌 것으로만 구성된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의 살과 피로만 되어 있다. 이 유기체적 실체를 돌아봐야 한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시작을 해야 다음이 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옮겨보는 실천이 있을 때에야,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해야 할 실천들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어져 간다. 물론 무엇이 정말 나에게 맞는 실천인지는 모른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고, 그것이 나라는 사람에게 정말 맞는 실천이었다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일 것이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 과정적 관계맺음이 주체다. 하나하나의 모든 시도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투쟁이자 경작이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후원도 해보고, 자원봉사도 시작해보고, 이런 저런 회원모임,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1~2년은 해봐야 무언가를 조금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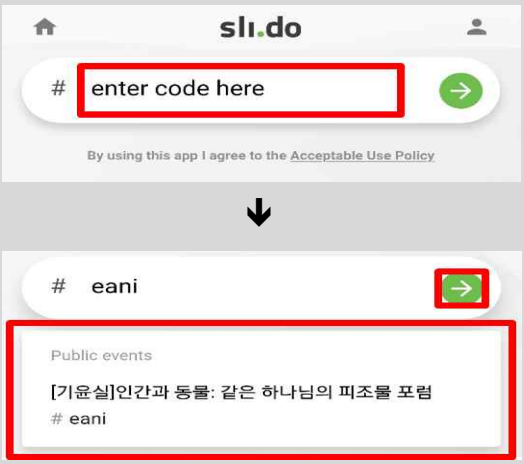
글로벌화 된 사회에서 소득은 약탈과 다른 말이 아니다. 동물권은 반글로벌화와 닿아 있으며 곧 소득을 포기하는 생활과 닿아 있다. 거기엔 맘모니즘이 아니라 두 다리로 대지에 서서 경작해가는 삶이 있다.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동물권을 위해 내가 있는 곳, 곧 보냄 받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간다. 동물권은 내가 주체가 되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저 동행하는 것이다. 인간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동행이 그 날을 불러온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가올 완전한 동물권을 꿈꿀 것이며, 우리의 행동과 함께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어가는 동물권을 맞이할 것이며, 우리 안의 동물권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렇게 그 날을 기다린다.

질문은 이렇게 해주세요! - 어렵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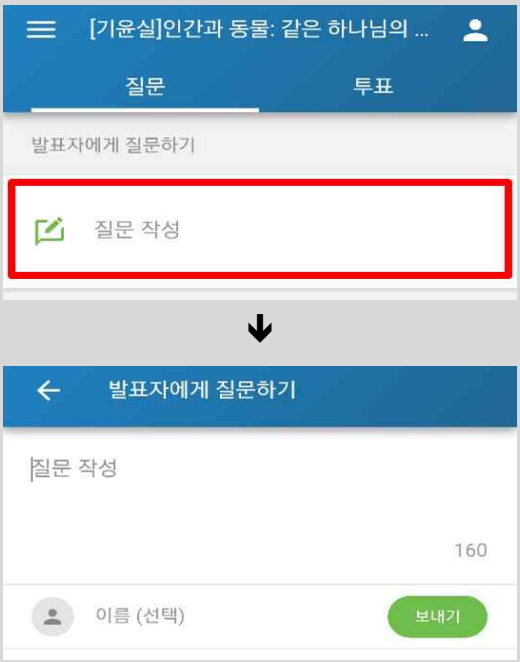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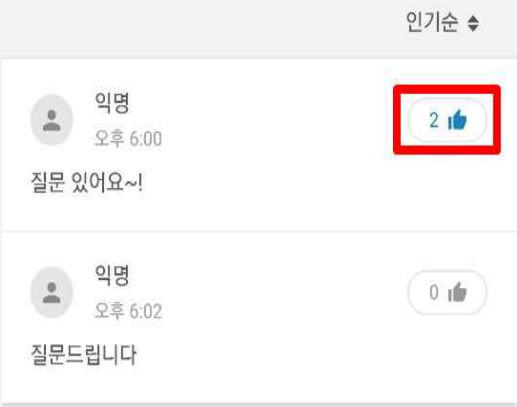
1.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주소 입력란에 **sli.do** 를 입력하고 접속해주세요.

2. sli.do에 접속한 다음 코드 입력란에 **eani** 를 입력해주세요.(하단에 자동으로 뜨는 public event를 클릭하세요. 우측 화살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eani = **e**thics + **ani**mal 입니다.



3. 이곳에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4. 나와 유사한 질문을 한 분이 있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수가 많은 질문을 우선 전달**합니다.